조계종 연수교육 온라인 전면 전환

교육원, 자체 플랫폼 구축… 강좌형 연수 온라인화

수강률 확인 등 수강 편의성 높여
해외 스님들 귀국 않고 연수 가능
향후 일반 공개 포교 활용 계획도
지원봉사·순례형 연수, 잠정 중단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승려 연수가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자체 연수교육 플랫폼 구축을 1차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3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 일정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연수교육은 △강좌형 연수 △인증교육 연수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중 조계종 교육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강좌형 연수는 '종교와 불교교단'을 제외한 4개 과정 21개 강좌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좌형 연수의 전면 온라인화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올해에도 지속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일부 승려 연수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자체 플랫폼이 없어 강좌 신청이나 진도, 수강율 확인이 어려워 스님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 플랫폼 구축을 준비했고, 올해 초부터 플랫폼 제작에 들어가 1차 완성을 마쳤다.



조계종 교육원이 새롭게 구축한 종단 승려 연수교육 플랫폼 메인 화면. 이를 통해 21개 강좌형 연수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새로 구축된 온라인 연수교육 플랫폼은 수강하는 스님들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 로그인을 하면 강좌 신청부터 강의 수강, 진도·수강률 등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단순히 강의로 끝나지 않고, 사전 제작한 현장 답사 영상을 제공해 현장성을 가미하는 등 강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계종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비대면 연수를 진행했으나 강의를 수강하는 스님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자체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연수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외 거주 스님들은 그간 연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강좌 연수 온라인화로 연수교육을 위해 귀국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조계종 교육원은 온라인 연수교육에 사용된 콘텐츠 중 일부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이러닝 학습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원 유튜브 등을 통해 일반 재가자에게도 공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인증교육 연수는 서울 26개, 경기 2개, 강원·충청 6개, 대구·경북 6개, 부산·울산·경남 4개, 전남 2개, 제주 1개, 전국 대상 4개 등 전국 5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진행한다. 2018년 시작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 인증' 프로그램은 현재 27개 결사체가 인증단체로 선정돼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국내·외 문화탐방으로 진행하는 '순례형 연수'는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또한, 법계 과정은 신청 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기존 '종단리더십심화과정'은 '중덕·정덕 법계과정'으로, '종단지도자과정'은 '대덕·혜덕 법계과정'으로, '종단지도자최고위과정'은 '종덕·현덕 법계과정'으로 바뀌었다. 중덕·정덕 법계 수지 1~5년차에 해당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덕·정덕 법계과정1'은 올해도 교육비를 무료로 진행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연수교육 강좌 일정과 내용을 알리고자 전국 사찰에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선운사, 내장사 화재 참회…수습복구 만전

3월 5일 내장사 방화로 대웅보전 소실

방화범은 예비승려 확인돼 충격
종단·선운사 즉각 입장문 발표
면밀조사 후 대책 마련 등 추진

정읍 내장사 대웅보전이 3월 5일 화재로 소실됐다. 화재의 원인이 방화인데다, 방화범이 사찰에 머물던 예비승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조계종과 제24교구본사 선운사가 즉각 참회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와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내장사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날 오후 6시35분경이다. 신고를 받은 전북소방본부가 즉시 출동에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대웅보전은 불길에 휩싸인 채였다. 빠르게 번지는 불길에 대웅보전은 전소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웅보전 옆 관음전에 보관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49호 조선 동종과 전라북도 기념물인 내장사지,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비록 대웅보전은 소실됐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화재의 초기진화를 위한 사찰 대중들의 노력 덕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중에 있던 스님과 종무원들은 불길을 발견한 즉시 화재신고를 한 후 모두 달려 나와 진화에 나섰다. 이미 대웅보전에 불길이 붙은 상황에서 화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사찰에 비치된 소화전을 이용해 다른 전각과 산으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묵 스님이 연기를 마셔 병원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화의 원인이 '사찰 내부갈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방화범 A씨와 함께 지냈던 사찰 대중 스님들은 "방화 1시간 전까지 함께 차를 마시는 등 다툼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무엇보다 함께 지내는 동안 사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적도 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스님들은 "3월 5일은 문중의 어른 스님인 기산 스님의 기일로, 모두 추모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3월 5일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보전.

방화범 A씨는 타종단에서 전종해 갓 승가대학을 졸업한 예비승려로, 방화 후 현장검거돼 현재 구속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내장사 화재와 관련, 조계종과 선운사는 즉각 참회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조사와 복구 등을 통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은 3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방화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방화행위에 대해서는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 따라 최고수위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운사도 참회의 뜻을 밝히며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방화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찰의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월 10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내장사 사건과 관련한 참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내장사 대웅전 소실이라는 참담한 소식에 상심이 많으셨을 사부대중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종단은 원인을 깊이 살펴 사건 수습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회의에 앞서 참회와 더불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후쿠시마 10주년…종교인 탈핵 선언

5대 종교, 3월 6일 기도회
불교환경, 탈핵퍼레이드도



불교환경연대 현중 스님의 기도문 낭독.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5대 종교계가 핵없는 세상을 재차 선언했다.

5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3월 6일 서울시청 시민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기해 탈핵 선언을 넘어선 탈핵 실현을 위한 종교인 기도회를 봉행했다. 종교환경회의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등 5대 종교 연대 조직이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됐다. 스님은 발원문에서 "핵발전을 멈추고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불교환경연대 주도로 3월 11일 국회 정문에서 청와대까지 '잊지말자 후쿠시마! 끝내자 핵발전!'을 주제로 탈핵을 촉구하는 행진도 진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죽음 부른 차별"…차별금지법 촉구

사노위, 3월 5일 입장문
3월 18일부터 기도회 재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3월 5일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또 3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다시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사노위는 "김기홍 님과 변희수 님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그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선행 지음 | 14,000원

맑은 가난
수행과 정진의 가르침

淸貧

맑고 가난한 마음,
그것이 수행이다

정진하는 수행자 선행 스님이
수행하는 삶에서 마주한 하루하루의 기록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작은 걸망에 의지한 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수행자의 35년을 반조하는 수행기 45편

지은이 선 행

통도사 강원과 율원을 거쳐, 은해사 삼장 경학원을 1기로 졸업했다.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0여 년 참선을 했고, 통도사, 해인사, 법주사 강원을 거쳐
백양사, 선운사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는 영축총림 통도사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다.

담앤북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